

컬럼비아 특별구 시민 자문 사무소(Office of the People's Counsel)  
 Sandra Mattavous-Frye, 시민 자문  
 1133 15<sup>th</sup>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 (202)  
 727-3071. 팩스 (202) 727-1014. TTY/TDD (202) 727-2876  
[www.opc-dc.gov](http://www.opc-dc.gov). Twitter @DCOPC. [www.facebook.com/DCPeoplesCounsel](https://www.facebook.com/DCPeoplesCounsel)



즉시 배포용: 2016년 6월 30일(목)  
 연락처: Doxie A. McCoy, 공보관  
 (202) 261-1180, [dmccoy@opc-dc.gov](mailto:dmccoy@opc-dc.gov)

## Pepco 에서 수십 년 만에 대규모 요금 인상 요구

*시민 자문(People's Counsel)은 본 사안을 철저히 분석할 것과... 합병 모니터링 팀을 구성할 것을 약속한다.*

워싱턴 D.C. – Pepco 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오늘 제기된 소송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에 대한 요금을 8천 5백 5십만 달러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 자문 Sandra Mattavous-Frye 에 따르면, 시민 자문 사무소 재직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Pepco 에서 제기한 소송 중 가장 대규모의 요금 소송이라고 한다. “시민 자문 사무소(OPC)는 이번 대형 소송 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요금 인상은 항상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 필요에 기반해야 하며 절대로 Pepco 와 Exelon 의 장기 합병 절차와는 관련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라고 Mattavous-Frye 는 말했다.

8천 5백 5십만 달러 요금 인상이 승인되면 평균 주거 요금이 매월 4.36 달러, 즉 5.25% 오른다. Pepco 측은 이번 소송 이후로 2019년까지는 소비자가 어떠한 요금 인상액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는 주거비 공제를 제안했으나, 특히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측이 합병을 승인하는 규정 내 유사한 조항을 명백히 거절한 적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해당 요청을 수락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2006년 이후로 Pepco 는 네 차례 요금 소송을 통해 9천 6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 해당 특별구의 유틸리티 소비자에 대한 법정 옹호자로 지정된 OPC 의 역할은 요금 인상 폭을 가능한 한 낮추고, 신뢰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에게 해당 소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주거 및 주택 비용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Mattavous-Frye 는 언급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OPC 는 유틸리티 요금 소송과 관련 있는 모든 특별구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에 더 전념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자들이 상주 소비자를 무시하고 몰이해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계속)

한편으로 OPC는 합병에서 약속한 모든 혜택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PC는 협의에 포함된 147 개의 공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합병 준수 팀(Merger Compliance Team)을 구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OPC는 D.C 고등 법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OPC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한 위원회의 명령을 검토할 것이다.

###